

대체의학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진로선택

이갑남¹⁾ · 장혜인²⁾ · 김재희^{2)*}

¹⁾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제3의학과, ²⁾ 경기대학교 대체의학대학원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in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Alternative Medicine

Gabim Lee¹⁾, Hyein Jang²⁾ & Jaehee Kim^{2)*}

¹⁾ Department of Third Medicine,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²⁾ Graduate School of Alternative Medicine, Kyonggi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The aim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major satisfaction, career choices and perceived career barriers in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alternative medicine.

Methods: A total of 315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alternative medicine in 5 universities in K city and J province completed survey questionnaires.

Results: The highest proportions of students (38.4%) chose alternative medicine major because of their aptitude and interest. Students (59.0%) were satisfied in general with their majors. Regarding career direction after graduation, the highest proportions of 1st and 2nd year students answered that they haven't decided yet (33.7%). In addition, they wanted to get a job in hospitals (24.6%) and have more education (21.9%). The highest proportions of 3rd and 4th year students wanted to get a job in hospitals (31.3%) and 27.3% of them wanted to have more education. The most important criterion for choosing a career was a career aptitude (38.7%) followed by professionalism, vision, pay, and social status in both groups. Regarding perceived career barriers, the highest proportions of 1st and 2nd year students (31.6%) answered the lack of social recognition about alternative medicine while the highest proportions of 3rd and 4th year students (55.5%) answered the lack of national certifications ($P<0.001$).

Conclusions: In general, students majoring in alternative medicine were satisfied with their majors. They wanted to get a job at a hospital and have more education. They thought that the lack of social recognition and national certification of alternative medicine would be career barriers.

· 접수: 2013년 9월 24일 · 수정접수: 2013년 12월 11일 · 채택: 2013년 12월 17일

* 교신저자: 김재희, 120-837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9길 63 경기대학교

전화: 02-390-5343, 팩스: 02-390-5078, 전자우편: jk41@kgu.ac.kr

Key words : Alternative medicine, Major satisfaction, Career decision, Career barrier

I. 서론

경제수준이 향상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만성질환이 증가하면서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¹⁾. 대체의학의 정의와 범위는 나라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 미국 국립보완대체의학센터(National Center fo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에서는 제도권 의학(conventional medicine)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다양한 의료, 기술, 제조품 등을 칭하는 포괄적 의미로 보완대체의학(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을 정의하고 있다²⁾. 미국의 2007년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약 38%가 보완대체의학을 이용하였으며, 비타민과 무기질류를 제외한 천연물, 심호흡법, 명상, 요가 등의 심신의학, 카이로프랙틱, 정골요법, 마사지 등의 수기요법, 동종요법, 침 등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²⁾.

국내에서는 보완대체의학과 대체의학이란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서양의학과 함께 제도권 의학에 속하는 한의학을 제외한 치료 방법, 치료행위, 혹은 의학적 체계의 총체를 보완대체의학 또는 대체의학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3), 4)}. 해외와 마찬가지로 국내 대체의학의 사용 비율 또한 높을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사용실태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국내 대체의학의 개념 및 사회적 위치, 대체의학 시술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회적 합의나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⁵⁾.

이러한 국내 현실에서 최근 10여년 사이 대학과 대학원에 대체의학 관련 교육과정이 개설되

면서 과거 주로 민간단체 혹은 학회 등을 통하여 산발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교육이 점차 제도화되고 있고⁶⁾, 정규 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이 사회로 배출되고 있다. 대학생의 가장 큰 고민 사항은 진로문제이고, 각 대학은 상담 및 진로 지도에 활용하고자 전공 선택이유와 만족도, 진로의식, 가치관, 졸업 후 진로계획 등을 조사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⁷⁾. 미개척분야이며 신생 전공인 대체의학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체의학 전공 대학생의 전공 선택 동기, 전공만족도, 희망 진로, 그리고 진로선택에서 나타나는 장애는 무엇인가에 대해 조사하고 그 방안에 대해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전공(학과)만족도란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대와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학과를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선택한 전공이 자신의 가치관이나 진로에 대한 기대와 일치한다면 전공만족도가 높고 사회적 인식에 대한 지각 또한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⁸⁾. 임용수(1992 & 1993)^{9), 10)}는 대학생의 전공 선택은 학업성적과 적성과 같은 개인요인 외에도 부모나 교사의 영향, 개인의 사회경제적 계층배경, 산업·직업구조 등을 포함한 외적인 여건들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이루어진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이렇게 선택한 전공의 만족도는 그들의 진로의식 형성 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Swanson과 Woitke(1997)¹¹⁾는 진로장애란 ‘진로개발(career progress)을 어렵게 만드는 내적 또는 외적인(환경적인) 사건이나 조건들’이라고 정의하였다¹¹⁻¹³⁾. 국내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응답한 진로장애 요인들로는 대인관계 어려움, 자기명확성 부족, 경제적 어려움, 중요한 타

인(부모, 배우자, 이성친구 등)과의 갈등, 직업정보 부족, 나이문제, 신체적 열등감, 흥미부족, 미래불안 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존재하거나 미래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각된 진로 관련 어려움이 진로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13, 14)}. 대체의학에 대한 사회적, 법제도적 정비의 부족은 낮은 취업률 또는 사회적으로 낮은 처우로 이어질 수 있고 외적 좌절로 작용하여, 이는 전공 불만족으로 나타나고 진로장애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이에 관하여 조사된 바가 없다.

이에 본 조사연구는 대체의학 전공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 진로선택 현황과 진로선택 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 진로 관련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체의학 전공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대체의학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

본 설문조사는 K광역시와 J도에 소재하고 있는 4개의 4년제 대학과 1개의 전문대학의 대체의학 전공 대학생 총 318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조사대상자 선정 시 ‘대체의학과(부)’ 또는 ‘대체요법전공’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유사학과 전공 대학생은 제외하였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대체의학과를 보건계열로 분류하고 있었으며 주요 교과과정들은 의학과 한의학 관련 과목 및 보완대체요법 관련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개설된 주요 전공과목을 미국 국립보완대체의학센터의 보완대체의학 범주에 따라²⁻⁴⁾ 구분하면, 카이로프랙틱, 마사지 등의 수기요법, 요가, 명상 등의 심신중재, 전기와 광선요법, 기

공 등의 에너지 요법, 생약, 기능성식품학, 아로마요법 등의 생물학적 기반요법 및 운동요법 관련 과목들이었다.

2. 조사방법

설문조사는 2012년 9월 27일부터 시작하여 2012년 10월 24일까지 진행하였다. 수업시간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고 자가 보고식으로 작성하게 한 후 회수하였으며 학년 문항에 걸쳐 값이 있는 3명을 제외한 315명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 대학 선정 시 ‘대체의학과’ 학과사무실을 통해 설문조사 가능여부를 타진하였고 수락한 학과의 수업 담당 교수는 연구자와 전혀 연고가 없었다. 설문지는 수업이 끝난 후 담당교수가 없는 상태에서 배포되었고, 설문지에는 이름, 전화번호, 대학과 학과명을 기재하지 않게 하여 익명성을 보장하였다.

3. 조사도구

조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 성별, 연령, 학년, 학제, 전공 관련 자격증 등을 포함한 일반적 특성, 전공 선택 동기, 전공만족도, 진로 선택과 장애요인 등을 포함한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문항들은 다른 전공 대학생의 전공 선택 동기과 전공만족도^{14), 15)} 및 보완대체의학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선행 논문들^{5), 6), 16)}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전공만족도는 전반적인 만족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또한 5개의 하위영역과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된 전공만족도 척도¹⁵⁾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전공만족도 척도는 Braskamp 등(1979)¹⁷⁾이 대학생의 전공학과에 대한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미국 Illinois 대학에서 개발된 학과평가조사지를 나동진과 송재홍(1985)¹⁸⁾이 번안하였고 이를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15), 19)} 본 연구에서는 조원숙(2008)¹⁵⁾이 일반

만족(5문항), 교과만족(6문항), 관계만족(4문항), 인식만족(6문항), 진로조사(5문항) 5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26항목으로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했으며, 각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아주 그렇다 5점으로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 분석 결과 각 하위요인의 Cronbach's α 계수는 일반만족 .887, 교과만족 .835, 관계만족 .786, 인식만족 .908, 진로조사 .571, 전체는 .943 으로 나타났다.

진로선택과 장애요인에 관한 항목은 졸업 후 진로 방향, 진로선택 시 고려하는 직업의 가치, 졸업 후 진로선택 시 가장 큰 장애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요인을 알아보는 문항 등으로 전체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 자료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체의학 선택 동기, 전반적인 전공만족 여부, 진로선택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하였다. 무응답자가 있는 문항에 대한 빈도분석 시 무응답자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학년과 2학년을 저학년으로, 3학년과 4학년을 고학년으로 분류하여 저

학년과 고학년 간의 의견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을 사용하였다. 전공만족도 점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으며, 신뢰도는 문항 간의 내적일치도를 나타내는 계수인 Cronbach's α 로 측정하였다. 전공만족도 하부요인 점수의 저학년과 고학년 간 차이는 독립 t-검정으로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학년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 전공만족도 하부요인 간 차이는 학년 구분 없이 전체 평균으로 분석하였다. 하부요인 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은 같은 대상자에게 반복 설문한 결과이므로 반복측정 일원분산분석으로 검증하였다.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P < 0.05$ 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였다.

III.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에서 남성이 36.8%로 나타났고 여자는 63.2%로 나타났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ategory		Frequency	%
Gender	Male	116	36.8
	Female	199	63.2
Education system	Community college	25	7.9
	University	290	92.1
Grade	1st grade	104	33.0
	2nd grade	83	26.3
	3rd grade	68	21.6
	4th grade	60	19.0
Certification (Multiple responses)	National certification	48	14.9
	Private certification	115	35.6
	None	160	49.5
Age	Mean \pm SD	25.6 \pm 9.2	

다. 4년제 대학교의 학생이 92.1%로 대부분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5.6±9.2세였다. 학년 분포는 1학년 33.3%, 2학년 26.3%, 3학년 21.6%, 4학년 19.0% 순으로 나타났다. 자격증 보유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응답(복수응답)으로는 없음이 49.5%, 민간자격증이 35.6%, 국가공인자격증이 14.9%로 나타나,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Table 1). 국가자격증으로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피부미용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영양보호사, 보육교사, 생활체육지도자 등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민간자격증으로는 마사지, 카이로프랙틱, 발반사요법, 테이핑 등의 수기요법 관련과 요가, 미술심리치료, 음악예술치료, 웃음치료 등의 심신중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 발효 및 효소자격증, 아로마테라피스트, 임상비만관리사, 건강관리사, 체형관리사, 자세교정사, 병원코디네이터, 레크레이션 강사, 두피관리사 등의 민간자격증이 있었다.

2. 전공 선택 동기

대체 의학을 선택하게 된 동기에 관한 질문에

는 적성과 흥미 때문이라는 응답자가 전체의 38.4%, 주위사람의 권유 21.9%, 취업전망이 좋아서 13.7%, 성적에 맞추어 10.8%, 기타 9.2%, 한의학 또는 의학 관련 대학원 진학을 위하여 6.0% 순으로 나타나(Table 2), 대체 의학을 적성과 흥미가 있어서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학년을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누어 대체 의학과 선택 동기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학년에 따른 대체 의학과 선택 동기의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3. 전공만족도

1) 전공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전공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관한 문항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만족한다’가 59.0%, ‘잘 모르겠다’가 33.7%, ‘불만족하다’가 7.3%로, 절반 이상 학생들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학년과 고학년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학년에 따른 전공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2. Motivations for Choosing the Alternative Medicine Major

Category	1st & 2nd grades		3rd & 4th grades		Total		χ^2 (P value)
	N	%	N	%	N	%	
Aptitude and interest	72	38.5	49	38.3	121	38.4	6.169 (.290)
Vision for job	26	13.9	17	13.3	43	13.7	
According to grade	26	13.9	8	6.3	34	10.8	
Recommendation from others	38	20.3	31	24.2	69	21.9	
To go to graduate school of oriental medicine or medicine	11	5.9	8	6.3	19	6.0	
Others	14	7.5	15	11.7	29	9.2	
Total	187	100.0	128	100.0	315	100.0	

Statistical significance of differences in proportions of 6 categorical responses between two groups (1st & 2nd grades vs. 3rd & 4th grades) were tested by chi-square test.

Table 3. Overall Satisfaction with the Alternative Medicine Major

Category	1st & 2nd grades		3rd & 4th grades		Total		χ^2 (P value)
	N	%	N	%	N	%	
Satisfied	108	57.8	78	60.9	186	59.0	3.979 (.137)
Dissatisfied	10	5.3	13	10.2	23	7.3	
Not sure	69	36.9	37	28.9	106	33.7	
Total	187	100.0	128	100.0	315	100.0	

Statistical significance of differences in proportions of 3 categorical responses between two groups (1st & 2nd grades vs. 3rd & 4th grades) were tested by chi-square test.

Table 4. Student Satisfaction Levels with a College Major According to Subcategories

Categories of major satisfaction	1st & 2nd grades(N=187)	3rd & 4th grades(N=128)	Total(N=315)	t (P value)
General	3.7±0.6	3.8±0.7	3.7±0.7	-0.49 (0.627)
Curriculum	3.7±0.5	3.7±0.7	3.7±0.6	-0.09 (0.927)
Relationship	3.6±0.6	3.6±0.8	3.6±0.7	-0.05 (0.957)
Perception	3.4±0.7	3.5±0.8	3.4±0.8	-1.27 (0.207)
Career	3.0±0.5	3.0±0.7	3.0±0.6	-0.24 (0.808)
Average	3.5±0.5	3.5±0.7	3.5±0.6	-0.56 (0.578)

Statistical significance of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1st & 2nd grades vs. 3rd & 4th grades) were tested by independent t-test.

2) 전공만족도 하위요인

전공만족도를 일반만족, 교과만족, 관계만족, 인식만족과 진로조사의 5개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Likert식 5점 척도로 설문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각각의 하부 요인과 평균에 대하여 전공만족도의 저학년과 고학년 간 차이가 유의한지를 독립 t-검정으로 검증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4).

조사대상자 전체의 전공만족도 평균은 3.5점으로 나타났으며, 일반만족과 교과만족이 둘 다 평균 3.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관계만족 평균 3.6, 인식만족 평균 3.4, 진로조사 평균 3.0 점 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에는 통계분석결과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5개의 하위요인 간 차이를 반복측정 일원분산분석으로 분석

한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F=191.2, P<0.001), 개체-내 대비 검정결과 일반만족과 교과만족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이 두 하부요인과 비교하여 관계만족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관계만족과 비교하여 인식만족이, 인식만족과 비교하여 진로조사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다(모두 P<0.001).

전공만족도 하부요인 중 진로조사에 관한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 구성문항인 졸업 후 대체의학 관련 분야에 진학이나 취업 의향을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을 각 척도 별 비율로 살펴 보았다(Table 5). 졸업 후 학업연장 시 같은 학교 대학원으로 진학할 것이냐는 질문에 전체의 약 28%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약 60%가 전공 관련 취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4. 진로선택

1) 졸업 후 진로 방향

졸업 후 진로 방향에 대해 설문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은 ‘한·양방 병원 및 의원 취업’이었으나, 학년에 따른 진로에 대한 응답의 차이가 유의하여($P<0.01$) 저학년에서는 진로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은 반면 고학년에서는 병원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저학년은 ‘아직 결정하지 못함’ 33.7%, ‘한, 양방 병원 및 의원 취업’ 24.6%, ‘학업연장’ 21.9%, ‘사회복지 시설 취업’ 5.9%, ‘건강관리 센터 취업’ 5.3%, ‘개인 창업’ 4.3% 순으로 진로방향이 나타났으며, 고학년은 ‘한, 양방 병원 및 의원 취업’ 31.3%, ‘학업연장’ 27.3%, ‘아직 결정하지 못함’ 14.1%, ‘건강관리 센터 취업’ 8.6%, ‘개인 창업’ 8.6% 등의 순으로 진로방향이 나타났다(Table 6).

Table 5. Willingness to Pursue a Career in Alternative Medicine after Graduation

Category		1st & 2nd grades		3rd & 4th grades		Total		χ^2 (P value)
		N	%	N	%	N	%	
Willing to go to a graduate school in the same field	Strongly disagree	24	12.9	20	15.6	44	14.0	6.865 (.143)
	Disagree	64	34.4	30	23.4	94	29.9	
	Neutral	47	25.3	41	32.0	88	28.0	
	Agree	34	18.3	19	14.8	53	16.9	
	Strongly agree	17	9.1	18	14.1	35	11.1	
Willing to have a job in the same field	Strongly disagree	4	2.2	5	3.9	9	2.9	1.143 (.887)
	Disagree	11	5.9	8	6.3	19	6.1	
	Neutral	57	30.8	41	32.0	98	31.3	
	Agree	72	38.9	45	35.2	117	37.4	
	Strongly agree	41	22.2	29	22.7	70	22.4	

Statistical significance of differences in proportions of 5 categorical responses between two groups (1st & 2nd grades vs. 3rd & 4th grades) were tested by chi-square test.

Table 6. Career Direction after Graduation

Category	1st & 2nd grades		3rd & 4th grades		Total		χ^2 (P value)
	N	%	N	%	N	%	
Going to graduate school	41	21.9	35	27.3	76	24.1	18.25 (0.006)
Having a job at the hospital	46	24.6	40	31.3	86	27.3	
Working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11	5.9	5	3.9	16	5.1	
Working at the health-related center	10	5.3	11	8.6	21	6.7	
Self-employed	8	4.3	11	8.6	19	6.0	
Undecided	63	33.7	18	14.1	81	25.7	
Others	8	4.3	8	6.2	16	5.1	
Total	187	100.0	128	100.0	315	100.0	

Statistical significance of differences in proportions of 7 categorical responses between two groups (1st & 2nd grades vs. 3rd & 4th grades) were tested by chi-square test.

2) 직업의 가치

졸업 후 진로선택에 있어서 직업의 가치에 대해 설문한 결과 전체 38.7%가 ‘적성’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전문성’ 28.3%, ‘비전’ 21.9%, ‘보수’ 7.0%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Table 7).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어($P<0.05$), 저학년은 적성이(42.8%), 고학년은 전문성이(35.9%)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3) 진로 장애요인

졸업 후 진로 선택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에 관하여 설문한 결과, ‘대체의학 국가자격증의 부재’ 39.4%, ‘대체의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

23.5%, ‘자신의 준비 부족’ 15.6%, ‘사회적 제도 미비’ 11.1%, ‘적성과 흥미에 대한 확신 부족’ 7.9%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Table 8).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여($P<0.001$), 저학년은 ‘대체의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을(31.6%), 고학년은 ‘대체의학 국가자격증의 부재’를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55.5%).

IV. 고찰

본 연구에서 대체의학전공 대학생의 전공 선택 동기를 분석한 결과 적성과 흥미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주위사람의 권유, 취업전망이 좋아서, 성적에 맞추어서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7. Career Values

Category	1st & 2nd grades		3rd & 4th grades		Total		χ^2 (P value)
	N	%	N	%	N	%	
Professionalism	43	23.0	46	35.9	89	28.3	9.60 (0.048)
Salary	17	9.1	5	3.9	22	7.0	
Aptitude	80	42.8	42	32.8	122	38.7	
Vision	40	21.4	29	22.7	69	21.9	
Others	7	3.7	6	4.7	13	4.1	
Total	187	100.0	128	100.0	315	100.0	

Statistical significance of differences in proportions of 5 categorical responses between two groups (1st & 2nd grades vs. 3rd & 4th grades) were tested by chi-square test.

Table 8. Perceived Career Barriers

Category	1st & 2nd grades		3rd & 4th grades		Total		χ^2 (P value)
	N	%	N	%	N	%	
Lack of aptitude and interest	17	9.1	8	6.3	25	7.9	29.29 (<0.001)
Lack of national certificate	53	28.3	71	55.5	124	39.4	
Unprepared	33	17.6	16	12.5	49	15.6	
Lack of social recognition	59	31.6	15	11.7	74	23.5	
Insufficient social system	21	11.2	14	10.9	35	11.1	
Others	4	2.1	4	3.1	8	2.5	
Total	187	100.0	128	100.0	315	100.0	

Statistical significance of differences in proportions of 6 categorical responses between two groups (1st & 2nd grades vs. 3rd & 4th grades) were tested by chi-square test.

또한 전공에 대한 만족 여부에 대하여 전체의 59%가 '만족한다'라고 응답하여 과반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성과 흥미에 따라 또는 원하던 전공을 선택했을 때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성적에 맞추어 전공을 선택 했을 경우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는 선행연구 결과로부터 유추해 볼 때^{10), 20)}, 본 연구결과에서 전공에 만족하는 비율이 불만족하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적성과 흥미가 있어 대체의학전공을 선택한 경우가 가장 많았던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대체의학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일반만족, 교과만족, 관계만족, 인식만족, 진로조사 등의 5개 하부요인으로 세분하여 Likert식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모든 요인에서 저학년과 고학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에 학년 구분 없이 조사대상자 전체의 전공만족도를 분석하였는데 모든 항목의 평균은 3.5점으로 나타났다며,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면 일반만족과 교과만족이 둘 다 평균 3.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만족한다'에 가까웠다. 반면에 진로조사만족에서는 평균 3.0점(보통이다)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일반만족과 교과만족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이 두 하부요인과 비교하여 관계만족, 인식만족, 진로조사 점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고찰결과 대체의학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관하여 보고된 바가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조사한 대체의학전공이 단과대학구분이 없는 대학에서는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나머지 대학에서는 보건계열로 분류되고 있어, 전공범위를 보건계열로 확대하였다. 특히 같은 보건계열 전공 중 임상관련 전공인 간호학전공 대학생의 만족도와 비교 고찰하였는데, 본 연구결과와 비교가 용이하도록 같은 전공만족도 측정척도를 사용한 선행연구들^{21), 22)}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정은 등(2011)²¹⁾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측정도구로 간호대

학생의 전공만족도를 평가하였는데, 전공만족도 전체 평균은 3.54점으로 대체의학전공 대학생의 전체 평균 3.5점과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으나 하위 영역별로 보면 진로조사만족 평균이 4.0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교과만족 3.88, 인식만족 3.73, 일반만족 3.60, 관계만족 2.99점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조사만족이 가장 낮은 대체의학전공 대학생과 달리 간호전공 대학생은 진로조사만족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같은 보건계열이나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간호전공 대학생은 간호사 국가면허 취득이 가능하여 졸업 후 취업률이 다른 전공보다 비교적 높아 취업보장 때문에 간호학과에 입학한 경우가 가장 많이^{22), 23)} 위와 같이 진로조사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로조사만족을 뺀 4가지 하부요인으로 구성된 전공만족도 척도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조사한 문인오와 이경완(2010)²²⁾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주변에서 자신의 전공을 좋게 인식한다고 생각하는 인식만족이 3.4점으로 다른 만족도보다 낮은 대체의학전공 대학생과 달리 인식만족이 4.2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만족 3.68, 교과만족 3.45, 관계만족 3.04점 순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체의학대학생은 교과과정이나 교수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와 비교하여 전공에 대한 인식만족도가 낮고 졸업 후 진로와 전공과의 관련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체의학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체의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진로에 대한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진로조사만족에 관한 문항 중 같은 학과 대학원으로 진학할 것이냐는 질문에 전체의 약 28%만이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다수의 학생이 학업연장 시 타계열로 전공을 전환할 가능성을 보였다. 그러나 졸업 후 전공과 관련된 취업 의향여부에 대해서는 이보다는 훨씬 많은 약 60%가 전공 관련 취

업을 원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체 의학대학생이 대체로 전공에 만족하고 졸업 후 진로선택에 있어서 대부분이 직업의 가치를 비전과 보수보다는 적성과 전문성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졸업 후 진로방향에 관한 결과를 보면 한·양방 병원 및 의원에 취업하겠다는 진로포부가 고학년에서는 가장 많았으며(약 31%), 저학년에서는 ‘아직 결정하지 못함’(약 34%)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년의 네 명 중 하나는 대학원 진학을 원하였고, 아직 결정하지 못한 학생도 약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진로선택에 있어 직면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 가장 큰 장애요인에 관하여 설문한 결과 저학년에서는 ‘대체의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이 3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학년에서는 ‘대체의학 국가자격증의 부재’가 5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직까지도 국내 대체 의학의 범위, 사회적 위치 등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체의학 기술자의 자격에 관한 법제도적 정비가 되어있지 않다⁵⁾. 본 연구결과 이러한 외적 여건을 대체의학전공 대학생은 진로 장애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보완대체의학에 대하여 시술자에 대한 면허, 시술 범주, 의료과오, 교육 훈련, 의료보험의 급여, 의료이용 분야에 걸쳐 각 주의 실정과 의료환경에 따라 차별화된 법제화가 이루어져있다¹⁶⁾. 또한 국립보건원 산하 독립기구로 국립보완대체의학센터가 설립되어 있어 다양한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연구 및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안전성과 효과에 관한 과학적 근거가 축적된 제품 또는 시술들은 제도 권의학으로 통합하는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국민 건강증진에 편익을 줄 수 있는 보완대체의학 관련 권고안들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16), 24)}.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대체의학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화가 이루어져 국가산하 정

책위원회 또는 기관이 설립되어 대체의학 관련 면허 또는 국가자격증이 법제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V. 결론

본 연구는 K광역시와 J도 소재 5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체의학전공 대학생 총 315명을 대상으로 대체의학전공 선택 동기, 전공만족도, 희망진로, 그리고 진로선택 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 진로 관련 어려움에 관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대학전공 선택 시 대체의학에 선택한 동기로는 적성과 흥미 때문인 경우(38.4%)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주위사람의 권유로, 취업전망이 좋다고 생각되어서, 성적에 맞추어 대체의학전공을 선택하였다.
2. 대체의학전공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59%로 반 이상이 전공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만족도를 일반만족, 교과만족, 관계만족, 인식만족, 진로조사 등의 5개의 하부 요인별로 살펴본 결과 일반만족과 교과만족이 가장 높았다.
3. 졸업 후 진로선택에 있어서 병원취업과 학업연장을 선호하였고, 적성과 전문성을 직업선택 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대체의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과 국가자격증의 부재가 졸업 후 진로 선택 시 직면하게 될 가장 큰 장애요인일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1. 이태형, 김남일, 맹웅재. 보완대체의학의 정

- 의 변화와 국내 관련 연구 분석. 한국한의학 연구원 논문집. 2010;16(2):43-55.
2. Barnes PM, Bloom B, Nahin RL.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use among adults and children : United States, 2007. Natl Health Stat Report. 2008;(12):1-23.
 3. 임병목, 민지현, 장옥승, 민무홍. 우리나라 국민의 대체요법 이용 및 비용지출 현황. 대한한의학회지. 2004;25(1): 142-151.
 4. 김슬기, 이상훈, 서현주, 백승민, 최선미. 국내 보완대체의학 사용 실태조사 연구의 동향 분석. 대한한의학회지. 2012;33(1):24-41.
 5. 이윤성. 보완대체요법의 의학적 평가. 의료법학. 2004;5(1):45-65.
 6. 조무성. 미국의 보완대체의학정책조직의 한국에의 적용문제와 해결방향. 한국 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4:307-330.
 7. 조혜영. 신입생과 재학생의 진로 및 대학생활에 대한 의식 실태조사 비교연구. 상담평가연구. 2010;3(2):15-30.
 8. 김계현, 하혜숙. 대학생의 학과(학부)만족의 요인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2000;1(1):7-14.
 9. 임용수. 진로사회화의 개념 구성과 교육사회학적 논의. 교육학연구. 1992;30(3):257-273.
 10. 임용수. 전공만족도를 중심으로 본 대학생들의 진로사회화 과정에 대한 조사 연구. 경희대학교교육문제연구소. 1993;8:107-129.
 11. Swanson JL, Woitke MB. Theory into practice in career assessment for women: Assessment and interventions regarding perceived career barriers. J Career Assess. 1997;5: 443-462.
 12. Punch R, Creed PA, Hyde MB. Career barriers perceived by hard-of-hearing adolescents: implications for practice from a mixed-methods study. J Deaf Stud Deaf Educ. 2006 :11(2):224-37.
 13. 김은영.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 (KCBI)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002; 14(1):219-240.
 14. 박종운, 차타순. 수·해양대학생들의 진로선택과 진로탐색장애에 관한 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2009;21(3):459-469.
 15. 조원숙. 대학생의 전공-흥미 일치도에 따른 전공만족도 및 학업성취도와와의 관계. 대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16. 임병목. 미국의 보완대체의학 제도와 정책. 대한예방한의학회지. 2010;14(1):137-149.
 17. Braskamp LA, Wise SL, Hengstler DD. Student satisfaction as a measure of departmental quality. J Educ Psychol. 1979;71: 494-498.
 18. 나동진, 송재홍. 전공-적성 불일치 학생: 현황과 성격적 특성. 학생생활연구(전북대학교). 1985;16(2):424-431.
 19. 하혜숙. 대학생의 학과(학부)만족과 학교만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20. 임용수. 진학 정보 진로교육연구. 1993;1:18-38.
 21. 고정은, 김미희, 김은진, 김혜지, 엄지은, 이행아, 장누리, 장동은.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의 관계: 일대학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이화간호학회지. 2011;45: 29-44.
 22. 문인오, 이경완.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탐색효능감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10;16(1):83-91.
 23. 손봉희, 김영미, 전인경. 간호대학생의 직업존중감, 직업관, 전공만족도 연구.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2011;20(3):240-249.
 24. National Center fo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Health Topics A-Z. <http://nccam.nih.gov/health/atoz.htm> [접속: 2013.9.23.]